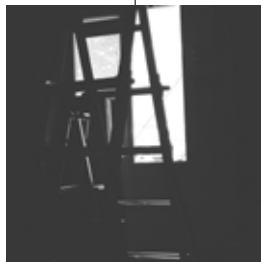


나는 리허설을 녹음하고 있다. 리허설을 녹음하는 게 내 역할은 아니고, 또 녹음이 이 작업을 기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공연은 음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이 공연은 소리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이 공연은, 아마도, 음악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끝난 공연의 흔적 속에서 음악감독으로서 나는 내 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공연장 한 귀퉁이에 녹음기가 차지하는 한 뼘 만큼의 공간이라도 점유해야 할 것이다. 내가 소리를 만드는 대신 소리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 하자, 안무가는 녹음기가 담을 수 없는 소리를 글이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STE-000)

창문 밖, 6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에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흘러오는 소음의 행렬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고 있다. 을지로4가역 2번 출구에서 좌측 좁은 골목을 지나 다시 좌측의 허름한 건물 안으로 들어와 제법 높은 계단을 밟고 4층으로 올라오면 여기, 을지공간이 있다. 이곳은 정사각형 무대를 가진 소극장이다. 열린 창문으로 늦은 오후의 햇볕과 함께 들어오고 있는 바깥 소음 사이로 조명기 세팅하는 스태프들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린다.

- 영상조명이요?
- 아, 화이트는...
- 조명회사를... 민재씨가 갔었을 수도...

(STE-001)

누군가 한 칸 한 칸을 힘 주어 오르자 사다리가 삐걱거린다.

- 예전에는.... 네가 움직이는 건지 내가 움직이는 건지...
- (웃음소리)
- 앞 동선이 어떻게...
- 사실은 카메라에 따라 갈 거 같은데요...

둔탁한. 삐걱대고 꺾이는. 쇠소리. 열쇠. 날카로운. 그 삐걱거림 사이로, 창을 타고 들어오는 바깥의 공기 사이로, 오토바이 하나가 긴 저음을 끌고 달려왔다 달려간다.

(STE-002)

- 네, 그렇게 되구요..하고 빨리 끝나면...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면... 호호.

(STE-003)

창문으로 부는 바람이 마이크에 부딪힌다. 마이크가 뒤를 돌면 극장의 한적함이 느껴진다. 대비. 간간히 조금 먼 곳에서 조명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계속.

(STE-004)

- 이걸 8번으로 하기로 했죠?
- ...네.
- 칼라를.... 조금만 들어줘요, 괜찮아요?
- 밝기가.... 풀이예요.

무대 감독과 조명 스태프가 빛의 밝기 조정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는데, 어디선가 핸드폰 사진 셔터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다는 듯이. LIGHT는 GHOST와 알파벳 3개를 공유하고, 그 중 두 알파벳이 배치되는 형태가 유사하다. GH. 발음되는 소리는 전혀 다르지만, 두 단어가 지시하는 것의 속성은 유사하다. 빛과 혼.

(STE-005)

관객석에서는 무대 뒷벽에 가리어 보이지 않는 뒷편. 분장실로 향하는 좁은 공간에 또



다른 창문이 있다. 창문 바로 맞은편에는 또 다른 건물이 바로 붙어있고 좌측으로 고개를 돌리면 그 사이로 을지로4가역 교차로의 단순하지 않은 소음이 무대와는 조금 다르게 들린다. 규칙적인 리듬의 고주파. 그 리듬의 간격을 채우는 또 다른 주파수들, 저마다 다른 길이로. 가벼운 소리, 무거운 소리. 길게 전면적으로 발려지는 소리와 그 가운데를 질주하는 하나의 음.

(STE-006)

두 번 짧게 올리는 자동차의 클락션. 조명 스태프와 안무가는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간다. 녹음 파일 생성일 1970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 9:00
녹음 파일 수정일 2005년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2:00
녹음기 날짜 세팅을 하지 않았다.

- 촬영은 몇 시부터 해요?...
- 아, 리허설?
- 원래는 4시부터인데,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어요.
- 아 네네..

불시에. 극장으로 침투한 사이렌 소리가 실내를 장악한다... 얼마 후 사이렌 소리가 홀연히 떠나고 극장은 텅 빈다. 텅 비었다고 느껴진다. 그 때 들리는 여자의 웃음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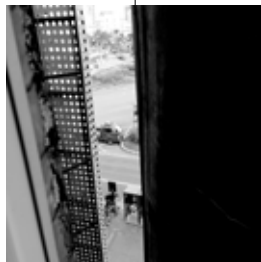
조명 스태프는 여전히 아직도 계속 사다리를 오르고있다. 누군가 노트의 페이지를 넘기고, 멀리 버스 소리도 넘어가고

있다. 사다리는 꺾이고, 쇠소리는 울리고.
저 아래에서부터 누군가 계단을 올라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발 소리가 점점
커진다. 발은 멈추지 않고 다시 멀어진다.
스태프는 계속, 사다리를 옮기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옮기고, 올라가고, 내려간다.

(STE-007)

부딪히고, 놓아지고, 구르고, 부딪히고,
떨어지고, 밟고, 끌고, 굴리고, 당기고, 접히고,
둔탁하고, 가볍고, 텅 비고,
플라스틱, 알루미늄, 고무, 기침.

- 연결하는거 잘 돼요?
hdmi 긴 선 짜리...
가지고 올까요, 그걸?
테스트 한 번 해보시죠.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할까요? 아,
충분하지요.



한 번의 긴 클락션... 또 한번의 더 긴 클락션.

- 사운드가 어떤 거예요? 아, 이 애플...
설정으로 들어가나요? 긴 걸 하나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짧죠. 이거
짧다고. 이거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 겹쳐지다 테이프를
당기고 찢는다. 웃음소리... 당기고 찢고,
당기고 찢는다. 속이 빈 알루미늄에 부딪힌다.
무대를 바깥으로 ㄷ자로 둘러 놓여진 접이식
관객 의자의 다리에 계속 무언가 부딪히고
있다. 극장 안 사물들은 계속 부딪힌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 전화를 끊는다. 그 억양은
앞에 상대방을 두고 말하는 감사합니다, 와는
묘하게 거리가 있고 더 예의를 갖춘 억양이다.

(STE-008)

- 영상...
- 서울 이야기 있고... 꽃피는... 그거랑
연관되는...

(STE-009)

- 서울에 언제 왔어요. 서울 이야기네.
서울이야기 1, 2... 아. 많다면
언제
많지 들어보고...
- 저는... 있었어요.
- 그래서 데이트할 때
어디가는지, 데이트할 때
아니더라도 가족이랑 바람
쐬러 어디가는지 서울에서...
그러고 나서 한 달... 남편은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건 다
있으니까.

- 조명 301, 302, 311... 301했어요.
301번 한 번 올려봐주실래요?...
이제 302, 아니, 304. 들어오나요?
잠시만요. 네,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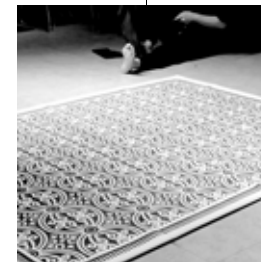
퍼포머들이 나누는 어떤 대화. 커터칼이
제자리로 당겨진다. 빠르게 간헐적으로
비빈다. 아마도 몸. 누군가의 몸.

기다리며 듣는 일이 지금 여기의 일이다.

무대 감독이 퍼포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들은 웃으며, 아니에요... 라고 답한다.
무대 감독은 사다리를 여전히 밟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있다, 시커멓게.

(STE-010)

- 아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텍스트가, 사람들이,
흐릿해질거예요, 텍스트가 너무
썩서. 블랙아웃, 네, 쿼 1번이죠?
근데 지금 앞에 나오시는. 훨씬, 아아
뒤에는 작게. 한 번 돌아다녀볼까요,
어떻게 보이시는지?
에어컨은 계속 키고 가실
거죠? 약간 더워질테니까
조명기를 켜서. 하나
더켜야겠네.
막 이래... 에헤헤.
어떠세요?
여기. 이 아, 조금
불일까요? 양쪽 다. 음...
광각이라 이게 벌어지는 거죠?
네. 되게 멀리가네요... 그럼 3시...



(STE-011)

- 아니, 아니요... 다가오면 공기가
없어져. 아, 약간 멍해지는.

공기와 압력. 빛과 소리. 희박해짐.
희박해지는 공기. 관객이 오지 않은
공연장에는 좀 더 많은 공기가 확보된다.

- 저쪽에 혹시 불이 켜져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스위치를 껐다 켜다,
켜다 켜다.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지금 저 쪽에 햇빛 들어오는게 있는데,
카메라 쪽에 들어오는게 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저 위에 있는,
아 저저 못 막을 것 같은데. 아 저저
위에 천정에 들어오는거 말이지요?
잠시만요 불 좀 주세요. 아, 저.
거기 거기를 막을게 아니라. 저 위가
문제인데. 테이프 하나 주실래요?
뛰어간다 뛰어온다 저 위 위. 일단
한 번 꺼 볼까요, 네 한 번 꺼 보고.
우와.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카메라에서 잡아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장막을 친 극장은 대낮에도
검은 빛으로 가득하다.

- 그럼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서
조명이 들어오면 될까요?
- 네, 그럼 지금 3초로
되어있는데요, (포즈)
급한가요? 괜찮아요.

퍼포머와 안무가와 무대 감독과 조명 스태프.
그들은 합심하여 검은 무대를 만들고 있다.
오직 검은 빛으로 채워진 검은 무대.

테크니컬 리허설

- 양말을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퍼포머 세 분이 딱 준비가 된
거 확인하고 안전갈게요. 네,
안전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요, 라이트 켜게요.

조명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딱 완성되고 나서. 뽕 한 번 해주시고요, 네, 고. 네, 완성됐어요. 네, 이겁니다.

정적. 그리고 움직임.

- 어. 이게 무슨. 전 안 건드렸는데. 어, 신호가 조금 도나보다. 어머니 어머니. 오와. 잠깐요, 뭔가 신호가 불안한 것 같은데. 지금 안 만졌죠? 네, 저는 손 떼고 있었어요. 어머. 뭐야. 신호에 뭐가 끼어들어갔는데.

신호. 혼. Light Ghost. 빛과 혼. 신호.

- 프로그램 저장했다 꺾다 켜봐요. 약간 어두워질 수 있어요. - 네, 안전하겠습니다.

(STE-012)

- 에어컨 끄겠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꺼지자 순간 정적이 들린다, 금새 조명기 팬 노이즈가 크게 들린다. 카메라 셔터가 연이어 놀린다.

하나 둘 셋... 3초 동안 밝아지는 무대. 환히 밝아진 무대는 섭외된 안무자들로 디딜 틈 없이 빼곡하다. 안무사람, 안무기계, 안무식물, 안무곤충, 안무사물, 안무생명체, 안무몸. 어떤 것에는 이름이 있었고, 어떤

것에는 보통 명사 외에 개별자의 이름을 갖지 못했다.

안무자들은 세 명의 무용수에게 몸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중력을 느낄 것을, 목적함을 수용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퍼포머들도 대부분 그 요청을 받아들인 듯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힘을 느끼고, 기울고, 쏟아지고, 숙이게 한다. 바닥으로, 지면으로부터, 무게가 옮겨지고 있다.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아주 미세하게. 안무가의 조건을 흡수하는 퍼포머의 몸. 퍼포머의 몸을 통과하는 안무가의 무게. 지면을 스치고 몸을 스친다.

- 지금 스페이싱만 하는거죠?

가슴을 향해 당길때마다 그 힘의 여파로...

안무가의 보이스가 재생된다. 보이스를 따라, 보이스가 읽는 문장을 따라, 세 명의 퍼포머가

몸을 움직인다. 섭외한 안무자들 중 육성을 가지지 않은 안무자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목소리이다. 보이지 않지만 지면에 닿는, 몸에 닿는 움직임들이 간헐적으로 소리로 등장한다.

지금 그 남편이 안 입는 반바지...

- 그 다음에 빔 다운. 한 번 거기만 해볼까요. 들어왔다 나가셨다. 앉으신거보고 조금 기다렸다. 고, 네네. 네, 완성됐어요. 이렇게 가시는거죠? 네. 네, 라이트 전 큐 가주시고요.

지금 그 남편이 안입는 반바지 두 번 했습니다. 은지씨 확인됐죠? 5초죠? 3초인데요. 더 천천히 가셔야하면... 아, 괜찮아요... 여기서 암전이죠? 네. - 컷 아웃을 해볼까요. 네, 오봉이 사진 나왔다.

무대 감독과 조명 스태프, 안무가가 합심하여 영상, 조명, 자막, 움직임, 내레이션의 타이밍 배치를 만들고 있다. 무엇 다음에 무엇 다음에 무엇.

불안함을 인지하며 완전히 기대지는 못하지만, 기대려고 애쓴다.

정적. 움직임은 대개 정적으로 들린다. 스치는 소리만으로 움직임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별 소리가 없다고, 안무가들이 대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다. 몸의 소리를 표현하고자 하지만, 늘 실패하는 것 같다. 실패. 소리에 실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셔터를 연신 누르는 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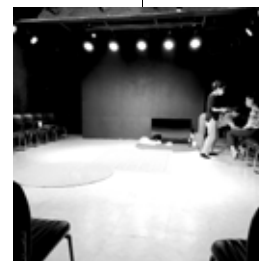
움직임이 많아질 수록 조용한 시간이 길어진다. 간헐적으로 발이 걷고 몸이 스친다. 입은 속삭이고, 의자는 빠걱인다. 갑자기 울리는 누군가의 핸드폰 소리.

- 네, 지금 6시인데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마무리까지 끝나고 갈 거죠. - 아직 여기 더 있어야 하겠죠. 아니면, 아, 어...

정적. 그리고 팬 노이즈. 관객석은 아직 오지 않은 관객들로 가득 차 있다. 거짓말이어야지 말할 수 있는 것들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감독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친다. 박수가 터져나온다.





- *
- rehearse (v.) c. 1300, reheersen, "to give an account of, report, tell, narrate (a story); speak or write words"
 "설명하다, 기록하다, 말하다, 이야기를 들려주다; 단어를 말하거나 쓰다"
- rehearsal (n.) late 14c., rehersaille, "restatement, repetition of the words of another; account, narration" from 'rehearse' + '-al'
 "진술, 다른 단어로 반복; 설명, 서술"

출처 <https://www.etymonline.com/word/rehearse>
<https://www.etymonline.com/word/rehearsal>